

# 섬김: 지도자의 자질

성경 본문	느헤미야 5:14~19
요절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여섯 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18절).
찬송	436장(통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595장(통 372장, 나 맡은 본분은)
이과의 목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끝까지 잘 섬길 수 있었던 뛰어난 지도자의 자질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배우고, 언행으로 솔선수범하는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한다.



## I. 생각하기

1. 당신은 가족 외에 보통 어떤 사람들에게 맛있고 비싼 음식을 사주고 싶어합니까?
2. 지도자가 지녀야 할 자질들 중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 II. 생각 넓히기

바벨론 왕 느브갓네살은 세 번에 걸쳐 남유다를 공격하여 멸망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을 제압한 바사 왕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세 번째 귀환을 이끈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당시 바사 왕 아닥사스다의 술을 관장하는 높은 지위에 있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후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한 후 바사에서의 편안한 삶을 뒤로 한채 성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의 지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백성들을 격려하며 성벽을 재건하려 하자, 유다의 적들이 그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으며 방해합니다. 그래도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고 성벽 공사를 진행해 나가자 유다의 원수들은 온갖 수단들을 동원하여 끈질기게 방해를 가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두렵게 하여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러한 공격을 받을 때마다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했고, 그 결과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성벽을 완성하게 됩니다. 원수들의 끈질긴 방해 속에서도 백성들을 잘 이끌어 성벽 재건을 완성하도록 이끈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 지녔던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다양한 영역들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봅시다.

### 1.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총독의 지위를 지닌 자들은 중앙 정부를 위해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몫을 위해서도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자신의 몫이 정해지지 않았기에 백성들에게 얼마를 징수하느냐는 철저히 총독의 권한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이전의 유다 총독들은 백성들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사십 세겔을 빼앗았고, 심지어 그들의 종자들까지 백성을 압제했습니다(15절). 하지만, 느헤미야는 유다 땅의 총독으로 섬겼던 십이 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고, 백성들에게서 그 어떤 것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와 그의 종자들은 자신들의 부를 늘리기 위해 땅을 사지 않았고, 나아가서 백성들과 함께 성벽 공사에 참여하기까지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왜 이전 총독들과 달리 행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15절)라고 가르쳐 줍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이전의 총독들이 행한 것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이 하지 아니한 일, 즉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그의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16절).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었고 실제적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백성들에게, 특별히 어려운 백성들에게 악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에 온 마음을 다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존경 받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시 34:11-14 참조). 그의 아들 솔로몬 또한 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잠 8:13 참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들과 명백히 구별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나 교사나 직장 상사나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부모나 교사나 직장 상사나 지도자와 명백히 구별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당신은 악을 미워하고 선한 일에 온 힘을 기울이며 살고 있습니까?

## 2. 느헤미야는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에 흉년으로 인해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힘겹다고 원망하며 부르짖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향해 크게 노하면서 백성들에게 취한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 그리고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의 일을 돌려보내라고 명합니다(느 5:1-11 참조). 그러자 귀족들과 민장들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느헤미야의 말대로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렇게 명할 수 있었고, 또한 그들이 느헤미야의 말대로 하겠다고 약속한 배후에는 느헤미야의 모범적인 삶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언행이 일치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매일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백오십 명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남유다 백성이 된 사람들을 위해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여섯 마리를 준비하고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마련하여 식탁을 차려주었습니다(17-18절). 백오십 명 이상의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많은 것들로 차려진 식탁을 상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풍성한 식탁을 통해 지친 지도자들에게 용기와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베푼 이러한 훈훈한 식탁 공동체는 분명 예루살렘 성벽을 짚은 시간 안에 완성할 수 있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흉년으로 인해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이야기하다가(느 5:1-13 참조), 왜 갑자기 이렇게 풍성한 식탁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잘 먹었는지 혹은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풍성히 베풀었는지를 자랑하기 위함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풍성한 식탁을 베풀었는지라도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했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백성의 부역이 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18절).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녹을 받지 않고 자신의 사비로 풍성한 식탁을 대접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선수범하면서 귀족들과 민장들을 향해 백성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저당 잡은 것을 돌려 주라고 말로 도전했던 느헤미야는 풍성한 식탁의 이야기를 통해 백성들에게 자신의 것을 풍족히 나누라고 행동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풍성한 식탁을 차린 것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훌륭한 점이 보입니다. 그것은 그가 ‘매일’ 섬겼다는 것입니다(18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한 번 섬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자신의 것을 드려 남을 섬기는 것, 그것도 ‘매일’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도자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섬김’은 특별 활동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이었습니다.



### 3.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매일 사비를 들여 차린 풍성한 식탁은 백오십 명 이상이 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17절). 그런데 느헤미야가 매일 ‘나를 위하여’ 식탁을 차렸다고 표현한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총독의 녹도 요구하지 않을만큼 백성들의 형편을 살필줄 아는 사람이 그 많은 음식을 그 자신을 위해 차렸을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왜 ‘나를 위하여’ 그 풍성한 식탁을 준비했다고 말했을까요? 자신이 행한 일과 관련하여 하나님께 드린 느헤미야의 기도에 힌트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19절). 느헤미야는 자신의 것을 가지고 최선으로 백성들을 섬겼지만, 백성들로부터 어떤 대가를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약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매일 백성들을 섬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 매일 섬겼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눈치챈으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자기를 위해’ 풍성한 식탁을 준비했다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실 은혜를 바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지도자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끊임없이 아름답게 섬길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동력이었던 것입니다.

부모들은 대개 자녀들을 위해 헌신적인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려는 마음의 동기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로부터 무엇을 바라거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들을 위한 헌신적인 수고가 자녀들에게 부담과 상처를 주기가 쉬울 것입니다.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 혹은 무엇을 위해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까?





### III. 생각살기

1. 당신이 '매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2. 우리 소그룹이 한달 동안 교회 전체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일을 구상하며 나누어 봅시다.

